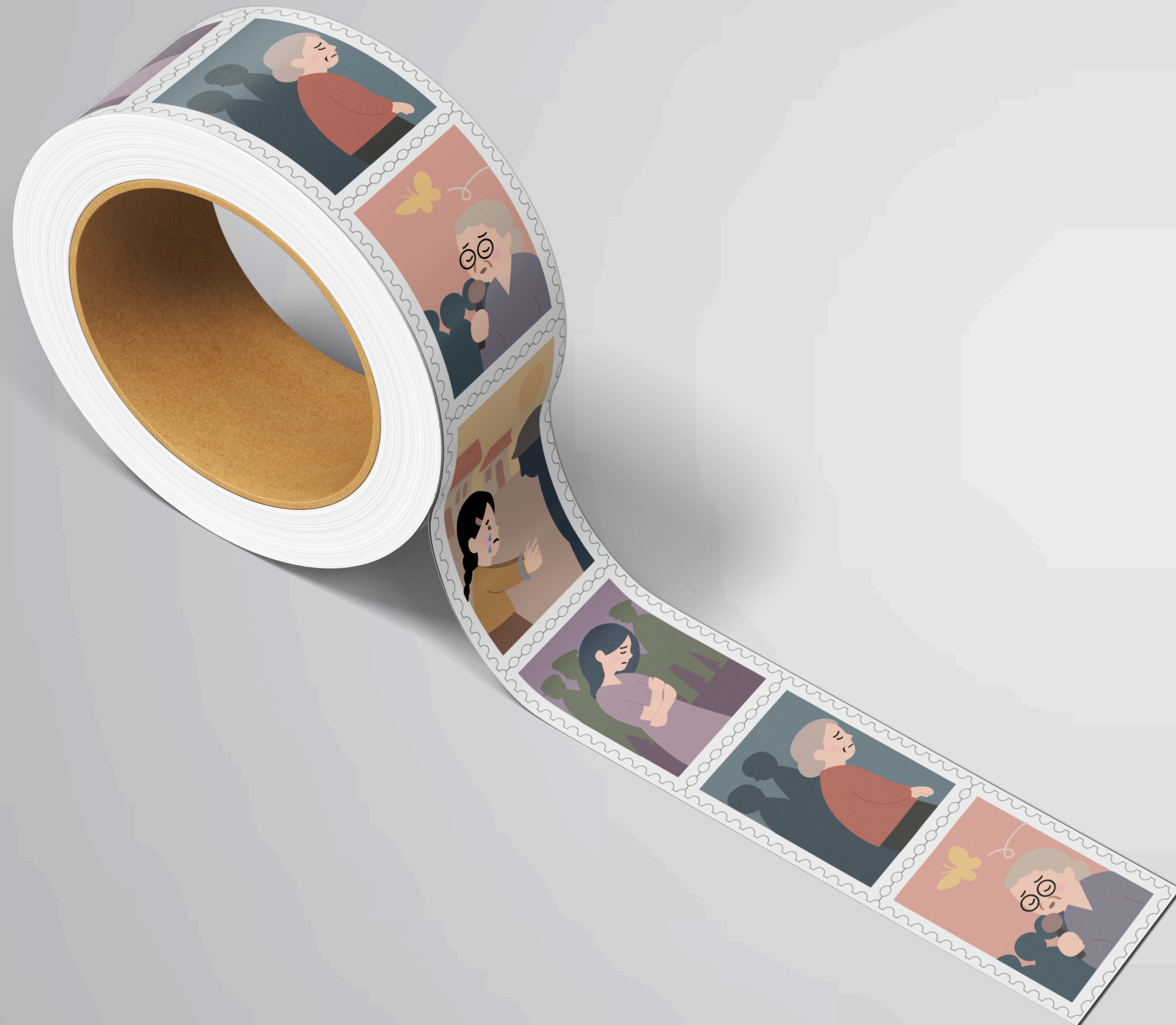


기억을 감다.

DESIGNED BY

신은지
sargentz@kaist.ac.kr



기억을 감다.

잊지 않기 위한 다섯 가지 기억, 감성을 감싸는 마스킹테이프 패키지.

기획 의도

이 작품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마스킹테이프 디자인에 담아낸 시리즈입니다. '기억'과 '공감'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단순한 시각 이미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쓰이고 공유되는 오브제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리본은 오랫동안 애도와 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킹테이프의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기억을 감싸고, 말 없이 전하고, 반복하여 남기는 방식의 애도와 행동을 제안합니다. 감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마스킹테이프는 세대 간의 감각적 소통을 돕고, 위안부 문제를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마주하게 합니다.

작품의 의의

다섯 가지 마스킹테이프는 각각 "위안부 문제 바로 알기",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야기", "문제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 "바라는 해결의 모습",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위로"를 주제로 하며, 그에 맞는 일러스트·아이콘·구성 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을 넘어, 실제 캠페인에서 기념품 세트(패키지 구성)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전시·SNS 홍보·캘린더 키트·우표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한 시각 자산을 제시합니다. 특히 각 마스킹테이프는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용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의 인권 교육, 추모 행사, 캠페인 굿즈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적 가치도 높습니다.

기억을 감다.

잊지 않기 위한 다섯 가지 기억, 감성을 감싸는 마스킹테이프 패키지.

이 패키지는 위안부 문제를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디자인한 마스킹테이프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종류의 테이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사용하도록 제안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메시지를 붙이고 감싸는 행위를 통해, 기억을 이어가고 마음을 나누는 작지만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바로 알기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

우리가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공감과 위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말하지 않아도, 붙이는 순간 기억이 전해집니다."

마스킹테이프는 단지 장식이 아닌, 기억을 잇는 '작은 행동'이 됩니다.

"리본이었던 기억은, 일상 속 테이프가 되어 이어집니다."

애도의 상징인 리본을 생활 속 오브제로 바꾸어, 기억을 일상에 녹여냅니다.

구성 1,

일본군 '위안부'문제 바로 알기 —— 우표 마스크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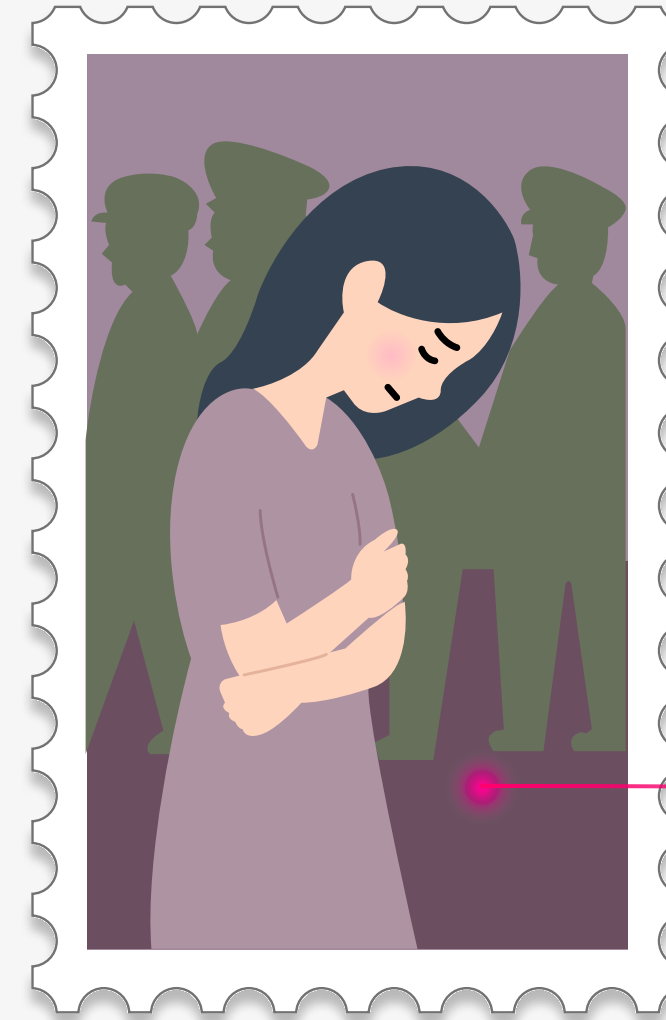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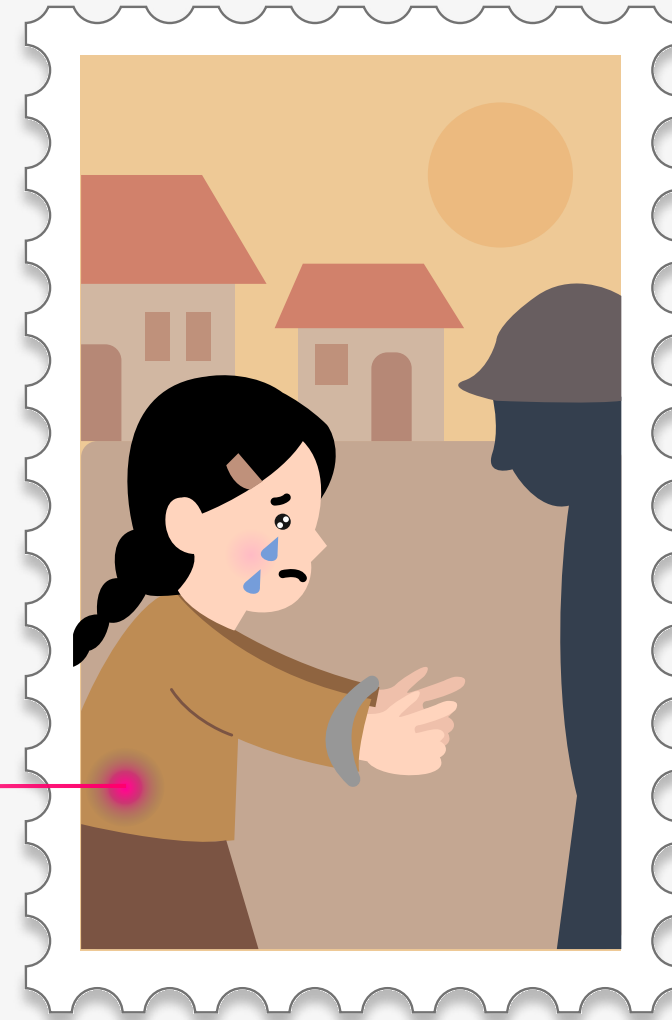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로 알기' 주제를 위해, 한 장 한 장 떼어낼 수 있는 우표 형태의 마스크테이프를 선택했습니다. 우표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멀리까지 보내는 매체이듯, 우표의 각 컷마다 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장면을 간결하게 담아내어, 잊혀서는 안 될 진실을 널리 전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한 장씩 전달되는 우표 마스크테이프는, 한 사람의 인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표를 통해 기억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안부 역사적 사실

강제 동원: '지원'이 아닌 '속임수와 납치'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가 아닙니다. 조선 소녀들이 일본군에 의해 속임수(공장·간호사 취업 등) 혹은 납치로 끌려갔습니다. 우표에 표현된, 가족과 갑작스레 헤어지는 장면은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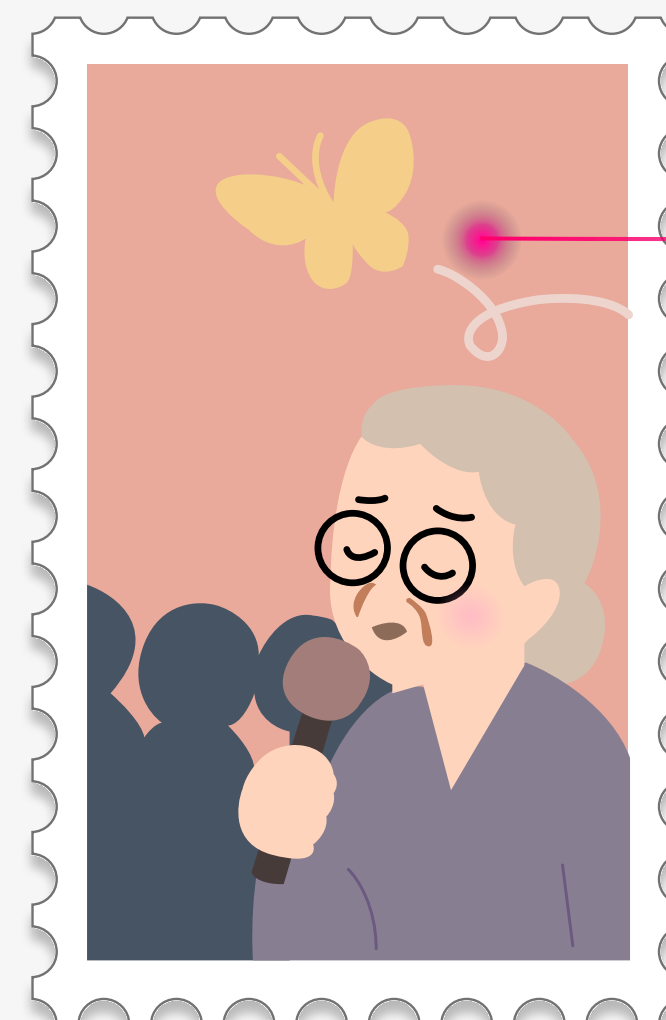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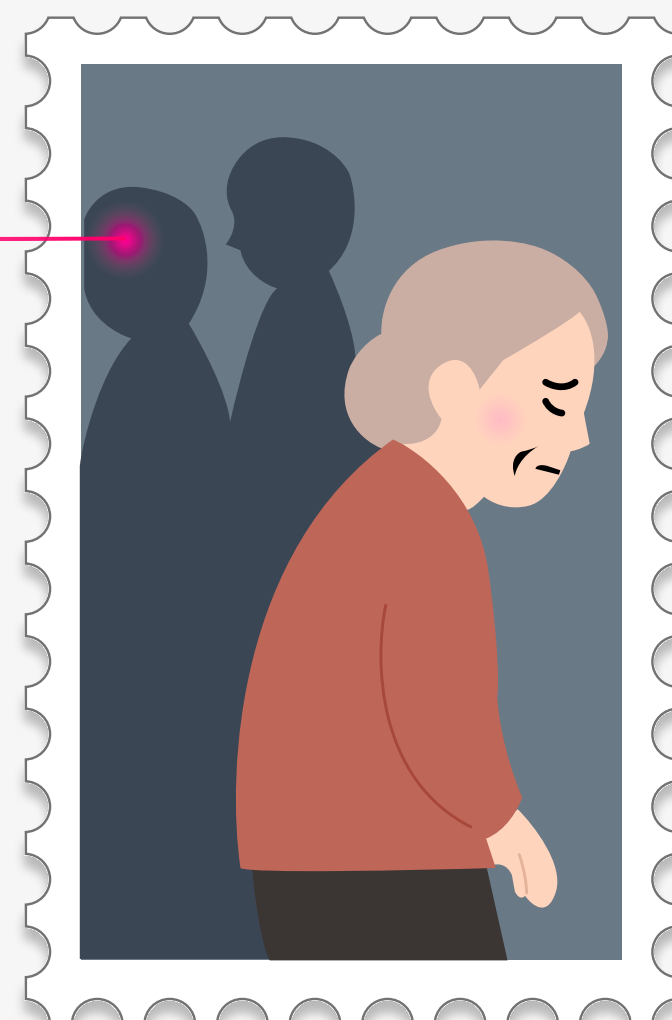


전선 위안소: 조직적 성착취의 현실

위안부는 전 세계 전쟁터에서 운영된 일본군의 공식 위안소에서 군인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대상이었습니다. 하루 수십 명과 강제 성관계를 가지며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도망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지속된 침묵과 외면

1945년 해방 이후 피해자들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사회적 낙인과 트라우마 속에 침묵 속에 살아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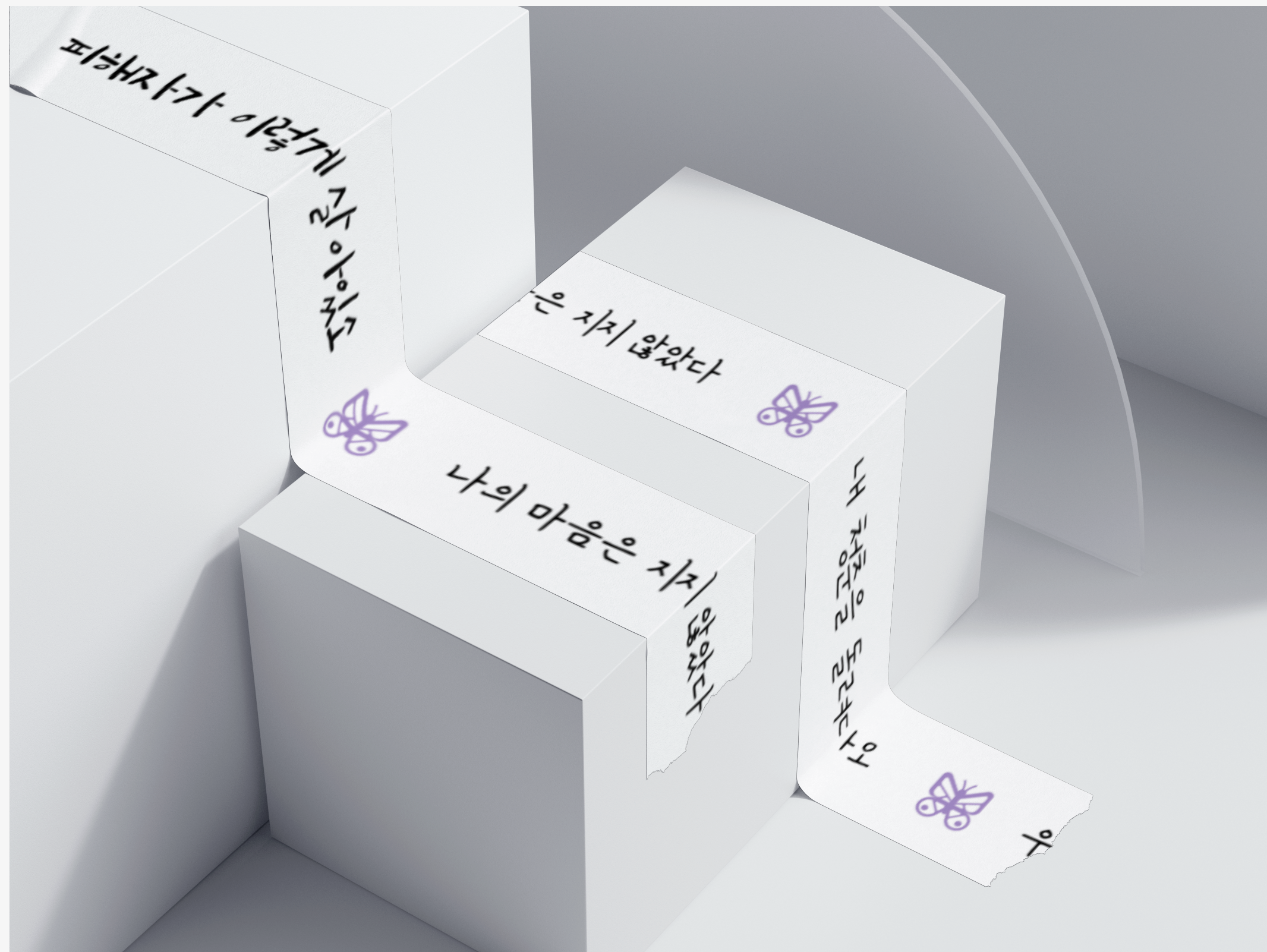


기억과 증언: '기억하는 싸움'의 시작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생존자들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성 2,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야기 —— 캘리그래피 마스크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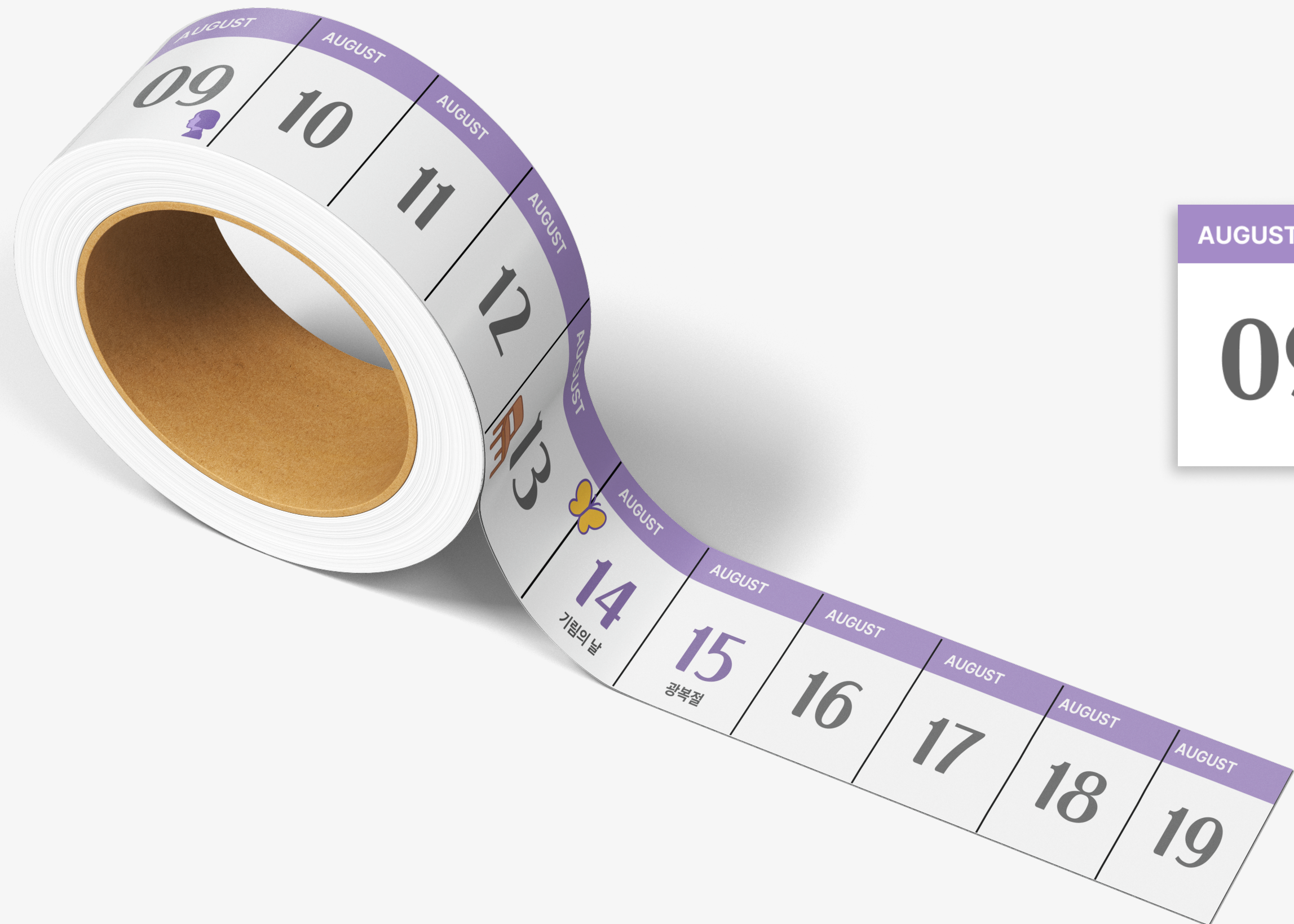
두 번째 마스크테이프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위안부 피해 이야기'를 주제로, 생존자 할머니들이 남기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캘리그래피 형태로 담아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할머니들의 손글씨를 활용해 더욱 진실되고 울림 있는 기록이 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배치된 보라색 나비는 일본군 '위안부'의 상징으로, 소녀들이 겪은 고통과 염원이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테이프는 기억을 전하는 다리이자 세대를 잇는 연대의 상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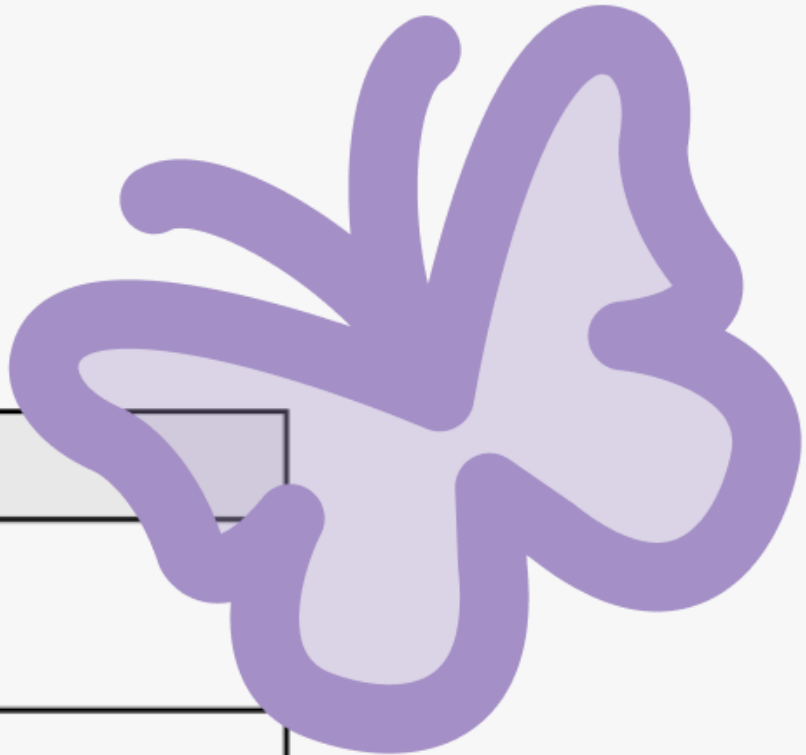
구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 —— 캘린더 마스킹테이프

세 번째 마스킹테이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주제로, 최근 일상 속 기록이나 다꾸에 널리 활용되는 캘린더형 마스킹테이프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매일 눈에 띄는 곳에 붙여 사용하는 달력 형태의 테이프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월 8일 수요시위 시작일 등 관련 주요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 기억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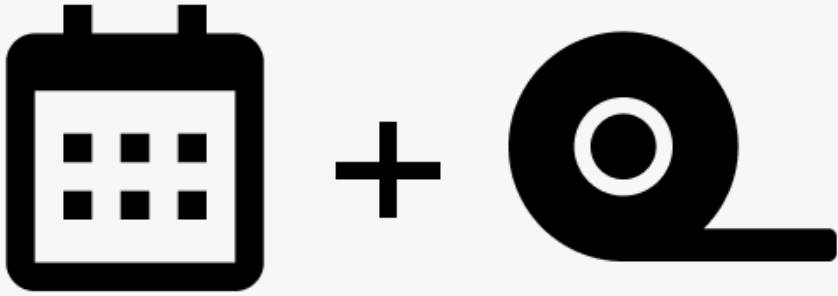


AUGUS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09	10	11	12	13	14	15	
					 기림의 날	광복절	



기억할 날짜들

날짜	의미	설명
1월 8일	김복동 할머니 별세일 (2019)	상징적 생존자, 국제 인권운동가
2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생일 (1924)	최초 공개 증언자
3월 1일	삼일절	일제강점기 저항운동의 출발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여성폭력 반대, 위안부 운동과 연계됨
4월 1일	최초 위안소 설치일 (1932, 상하이)	공식 위안소 제도 시작
6월 14일	1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1992)	위안부 국제 연대 시작점
7월 6일	김학순 할머니 생존 증언 발표 (1991)	최초 공개 증언일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UN)	인신매매+성착취와 관련된 국제 기념일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한국 공식기념일)	김학순 할머니 증언일 기준
8월 15일	광복절	일제 강점 해방일, 귀향 못한 피해자 상기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일 (1931)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시작, 위안부 제도와 연결됨
10월 10일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창립일 (1990)	민간 운동의 시작점
11월 중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일(2016)	기억 투쟁의 국제화 사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연결됨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	세계 최장기 시위, 꾸준한 연대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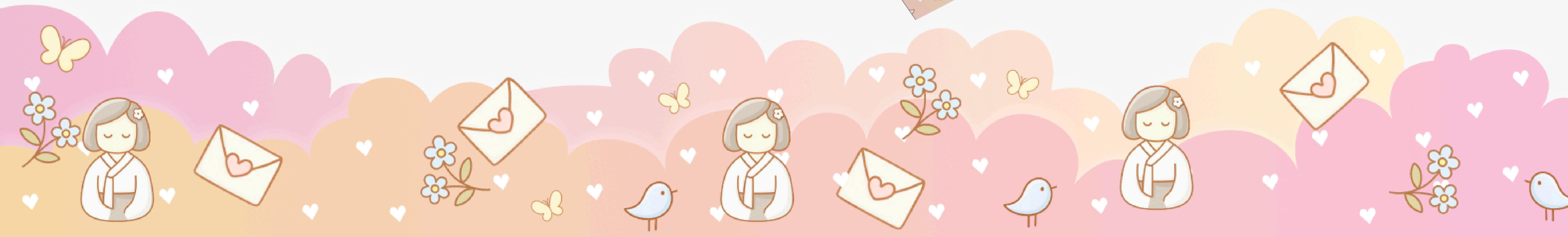


위안부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날짜들을 마스킹테이프에 표시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갖고 역사를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구성 4,

우리가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습 —— 씬(scene) 패턴 마스크테이프

네 번째 마스크테이프는 '우리가 바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습'을 주제로 한 씬 디자인 마스크테이프로, 따뜻하고 밝은 파스텔 색조의 배경 위에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평화, 연대, 위로의 상징인 비둘기, 나비, 소녀상, 편지, 꽃 등을 반복 배치해, 문제 해결 이후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따뜻한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아이콘 소개

이 다섯 가지 아이콘은 기억과 공감, 평화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우리가 바라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이후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그려냅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배치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도 그 염원을 꾸준히 되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진실과 공감,
연대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혼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평화와 치유, 갈등 이후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와 기억을 상징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억과 추모의 상징입니다.



구성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공감과 위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 꽃잎 마스크테이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로 알기' 주제를 위해, 한 장 한 장 떼어낼 수 있는 우표 형태의 마스크테이프를 선택했습니다. 우표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멀리까지 보내는 매체이듯, 우표의 각 컷마다 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장면을 간결하게 담아내어, 잊혀서는 안 될 진실을 널리 전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한 장씩 전달되는 우표 마스크테이프는, 한 사람의 인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공감과 위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기억을 상징하는 물망초와 작지만 강한 용기의 의미를 지닌 제비꽃을
꽃잎 형태의 마스킹테이프에 담아냈습니다. 각각의 꽃잎은 말 대신 마
음을 전하는 상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조용히 다가가 따듯
한 연대를 표현합니다.



이 꽃잎 테이프를 사용한 사진을
#기억을잇다 #꽃잎마음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공감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기획했습니다.

활용 방안

전체 패키징 시스템

이 마스크테이프 시리즈는 주제의식과 실용성, 확장성을 모두 고려한 패키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테이프는 '빈 의자' 모티프를 활용한 일체형 보관함에 담겨, 단순한 수납을 넘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부재와 기억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전시나 굿즈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교육·캠페인 현장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술성과 전달력을 겸비한 결과물입니다.

